급성 괴사성 치주 질환(Necrotizing periodontal disease,NPD) 치료 과정 및 경과 관찰

베스트치과[1], 애플치과[2]
임종원[1*], 설원석[2], 오은영[1]

[INTRODUCTION]
⊳ 괴사성 치주 질환은 일반적인 치주 질환과 병리생물학적 기전이 달라서 별도로 구분되어 분류하고 있다.
주로 청년층 및 젊은 성인에게서 가장 흔하게 발생한다. 구강내에 궤양이 흔하게 동반되며 심한 통증을 호소한다.
환자의 수면 부족, 스트레스 증가, 영양 결핍 및 면역력 저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급성으로 진행시 치조골이 소실되어 부골이 형성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골수염까지 진행될 수도 있다.
기존에는 항생제 및 가글 처방, 구강 위생 관리 유지등의 치료를 시행하였으며, 이는 증상이 완화가 되고 괴사가 멈추길 기다리는 보존적인 치료법이었다.
본 케이스에서는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PDRN을 사용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바이다.

[PATIENT INFORMATION]
⊳ 32세 직장을 다니는 남자이며, 최근 직장내 업무가 과중하여 빈번한 야근을 하고 혈뇨도 나왔다고 한다. 특별한 의과적 병력은 없으며 흡연은 하지 않는다.
양치시 심한 통증이 동반되어 내원하였고, 임상 검사 및 방사선 사진 검사 결과 15, 16번 부위의 급성 괴사성 치주 질환으로 진단하였다.

[TREATMENT PROCEDURE AND FOLLOW UP]
☞ PDRN은 1가지 종류만 적용하였다.
☞ 본 케이스에서는 24년 3월 23일부터 24년 4월 23일까지 가글, 항생제 처방, 전통적인 치주 치료를 시행하지 않고, PDRN만 단독으로 주사방법을 이용하여 6회 주사하였다.
2024년 4월 18일, 2024년 6월 15일, 2024년 9월 7일, 2025년 1월 11일 촬영한 CT를 서로 비교하여, 15,16번 염증 부위에 형성된 치조골 소실 부위에 치은이 새로 부착되고 치조골이 회복된 양상을 확인하였다.

⊳ 급성 괴사성 치주 질환 부위에 PDRN을 약 한달동안 6회 반복적으로 주사하고 경과를 비교, 관찰하니 치은 조직의 회복은 물론이고 치조골 회복도 관찰할 수 있었다.
급성 괴사성 치주 질환 염증에서 초기에 반복적인 PDRN 주사를 통하여 치조골 회복이 가능할 수도 있음을 확인하였기에 보고하는바이다.

[CONCLUSIONS AND DISSCUTION]
1. 본 증례는 치조골 손실 부위 병소가 확실하게 보이는 심한 괴사성 치주 질환에, PDRN을 이용한 주사방법을 통하여 추가적인 외과 시술없이 연조직 및 경조직의 회복을 보여 주었다.

2. 괴사성 치주 질환 치료시 치은이 소실되고, 치조골에 분화구 양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치료후 심한 치은 퇴축등이 발생하여 비심미적인 상태가 된다.
질환 초기에 주기적인 PDRN의 주사 적용은 괴사성 치주 질환의 진행을 신속하게 차단하여 술자와 환자의 만족도를 모두 높일 수 있는 술식으로 기대한다.

3. 향후에는 follow-up 기간을 더 확보하여 PDRN을 이용한 주사방법의 치조골 재생 효과에 대해서 더 확인이 필요하고, 나아가서는 PDRN의 주사 방법, 주사 횟수, 주사 용량, 주사 기간등에 관한 추가적인 임상 및 기초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